

## 16

##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

창세기 25장 19절~34절, 27장 1절~40절

이삭과 리브가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배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놀라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몸이 붉어서 ‘에서’라고 했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팔죽을 끓이고 있던 야곱에게 팔죽을 먹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야곱아, 네가 끓이고 있는 팔죽을 먹게 해 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내가 팔죽을 먹을 수 있게 해 줄게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따위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 야곱 네가 가져라."

에서는 죽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지요.

세월이 흐르고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너는 사냥을 해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sup>1</sup>장자의 명분: 첫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동생들보다 두 배 받을 수 있는 권리. 크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16)



16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가고,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염소의 좋은 새끼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에서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였고,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을 감싼 후,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음식을 먹은 후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 달라고 크게 울면서  
애원했지만,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 오늘의 공부

##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1. 장자의 명분과 팔죽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2.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에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의   을 판 에서와 같이     
 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16)

## 화목하게 하신 분

●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나아갈 때 어떻게 꾸미고 갔나요?

● 우리과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 알아볼까요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 다니는 세아라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들이 돈이 없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세아는 잠깐 노래를 부르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아는 건반 위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 세아를 위해 적어 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인 세아가 예수님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아는 이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곡은 바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 갈 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  
란

선생님  
란